

1988년 4월 25일 제112회 중의원 결산위원회

○ 일시: 1988년 4월 25일(월) 오후 1시 3분 개의

○ 발언자:

- 구사카와 쇼조(草川昭三) 의원(공명당, 중·참의원 의원, 공명당 부대표)
- 야마기시 지카오(山岸親雄) 설명원(후생성 원호국 원호과장)
- 우노 소스케(宇野宗佑) 국무대신(중의원 의원, 외무대신, 내각총리대신, 자유민주당 총재 등)

○ URL: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11204103X00419880425&spkNum=182¤t=14>

○ 해제(개요 및 특징)

전전(戰前) 아이치(愛知) 지역의 동남해지진(東南海地震) 사망자 중 조선반도 출신 정신대로 추정되는 6명의 성명이 거론됨. 구사카와 의원은 자신의 출신 지역에서 사망한 이 정신대 여성들이 실은 위안부로 징용되었고, 전후에 비참한 생을 살았음을 질타하고 있음. 우노 외무대신은 동감을 표시하며 새로 출범한 한국의 새 정권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함.

○ 주요 내용 번역

(전략)

- ▷ **구사카와 위원** “한국 이야기에 하나 더, 꼭 이것은 들어주셨으면 하고, 혹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협력을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은 전쟁 전에 당시는 조선반도였던 한국에서 학도동원(学徒動員), 근로동원으로 대량의 젊은 학생을 일본에 데려온 바 있습니다. (중략)

더욱이 당시 사망한 분들의 이름도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후생성(厚生省)에서 오셨다고 생각되니까, 후생성 쪽에서 1944년 12월 7일 어떤 분들이 사망하셨는지 사망자 명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 **야마기시 설명원** “답변하겠습니다. 동남해지진(東南海地震)으로, 지금 말씀하신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三菱重工業株式会社) 나고야항공기제작소(名古屋航空機製作所)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마침 저희가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이라는 법률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과 관련하여 1960년에 후생성으로부터 아이치현(愛知県)을 경유하여 입수한 자료가 있습니다. 명부 사본이 남아있는데, 그것에 따르면, 동남해지진에 의해 사망하신 분의 총수는 61명입니다. 그 가운데 반도정신대(半島挺身隊)¹⁾의 사망자로 보이는 분은 6명입니다.” 이상입니다.

- ▷ 구사카와 위원 “여섯 분의 이름을 알면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 야마기시 설명원 “가나(假名)가 없어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야모토 정숙(宮本貞淑), 구레하라 애자(呉原愛子), 가네다 광자(金田光子), 오야마 복영(大山福榮), 야마모토 정례(山本貞禮), 미쓰사와 예자(光沢禮子) 6명입니다.”
- ▷ 구사카와 위원 “우리 모두 이분들이 어디서 오셨는지, 현재의 한반도 각 지역에서 오셨으므로 가족들에게 연락하려는 운동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방문하면 실은 정신대라는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친다는 가족도 계시곤 합니다. 왜냐하면 전전(戰前) 일본의 군대가 강제적으로 당시 조선반도의 여성들을 일본 군대의 위안부로 징용했고, 전쟁이 끝났을 때 그런 분들은 반미치광이가 되어 대부분이 자해하는 등 비참한 역사적 상처가 있었다는 말들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남은 당신들 일본인이 그런 분들과는 다른 학도동원이었다는 점을 확실히 증언해주었으면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쿠노(奥野) 장관의 발언은 너무나도 상대국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대신의 견해를 듣고 싶군요.”
- ▷ 우노 국무대신 “한국에 관한 지금의 이야기는 저도 처음입니다만, 구사카와 의원의 출신지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서 여러모로 고심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로서도 당연한 일입니다만, 이 문제는 가족에 대해서도 그런 오해는 없다는 것을, 어떤 기회로든 조속히 해야만 한다는 점에 대해 저 역시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신임 주일(駐日)대사가 예방하여, 한국도 제6공화국이 탄생했고, 대사 또한 이전의 외무부 장관이 일본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으로부터 대사로 선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대단히 중요한 인사(人事)를 통해 일본과의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자 하는 시기에 저도,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는 외무성으로서도 즉시 후생성과 연락을 취하여 끔찍한 전쟁의 상흔을 씻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1) 조선여자근로정신대를 말한다.